electimes.com 전기신문 electimes.com

[호수면 : 제3637호 6면

(전기문화대상 대통령표창)오진택 드림엔지니어링 대표

신재생E 분야 설계·시공·감리·사업개발 '최고봉'

이석희 기자 작성 : 2019년 10월 24일(목) 11:30 게시 : 2019년 10월 28일(월) 14:16

오진택 드림엔지니어링 대표는 드림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적극적인 고용창출에 힘쓰고,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ESS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오 대표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설계·감리·EPC·사업개발 등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게 이번 수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15년 회사 설립 3년만에 드림엔지니어링을 국내 신재생업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성장시켰고, 신재생 EPC와 사업개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고형폐기물(SRF)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하고 있다.

연료전지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인 '대구테크노폴리스 연료전지(60MW)사업'의 설계용역을 수행했고, 그 외 서인천 연료전지 3단계 발전사업(18MW), 대산수소 연료전지(50MW) 등 국

내 주요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2017년 '군산2산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삼천포 태양광, 해남솔라시도, 영암학파 수상태양광, 임계 솔라파크 등 약 20여 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및 제안·기획설계를 마무리했다.

여기에 경주풍력발전, 통일전망대 양구풍력(90MW), 오두2풍력발전(57.5MW), 새만금해상풍력(99MW), 김제풍력(39MW), 바랑산풍력(60MW) 등 다수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일용량 350MW 해상풍력 설계용역을 수행하며 국내 풍력발전 산업의 기술향상에 기여했다.

또 현대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협력해 연 평균 약 40건의 ESS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며, ESS 설비분야에서 국내 최다 엔지니어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정신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2015년 7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현재 78명의 기술 인력을 거느린 회사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오 대표는 2016년 제27회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그는 국내 최다 기술사 자격보유자(9개)로 한국기록원에 공식 등록돼 있다.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사 학원을 운영하며, 대학 및 협회 등의 강연을 통해 후진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술사 학원의 경우 전기 분야 전국 1위 합격률을 자랑한다.

또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함께가자 도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도 수년간 수행했다.

오 대표는 "드림엔지니어링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설계·시공·감리·사업개발 분야 국내 최고 기업"이라면서 "이번 포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정책에 발맞춰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이석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전기신문 홈페이지(http://www.electime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ok@electimes.com